

전남 서부권

신안에 상수도·보행 다기능 목교

압해도~가란도 간 275m 31억 투입...내년 상반기 완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안 낙도에 상수도 공급과 보행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목교(나무다리)<조감도>가 건설된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도면 분매리와 가란도를 잇는 길이 275m의 목교를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송수관 제작 등 공사에 들어갔다. 복합기능의 목교는 전국의 첫 사례여서 외압과 풍력, 해수압 등 안전성 검토를 모두 마쳤다.

목교는 총사업비 31억원을 들여 주민들이 4륜 오토바이를 타고다

닐 수 있도록 너비 2.5m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매년 갈수기 식수난을 겪던 섬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50mm 송수관로를 목교속에 넣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해저에 송수관로를 매설하면 조업 어선과 조류에 의한 파손사고가 잦아 식수 공급이 끊기는 단점이 있다.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해저에 매설된 송수관로는 1~2차례 사고가 발생,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섬 주민들이 식수 고통을 겪는 게 좋은 사례다.

신안군 김일태 상수도 담당은 “관광용 목교설치는 있었지만, 섬 주민 식수공급을 겸한 목교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목교가 완성되면 다리 밑으로 소형어선 통과는 물론 주민들이 24시간 물으로 쉽게 나올 수 있고 식수도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압해도 북동방향에 자리한 가란도에는 60가구 120명이 살고 있으며 하루 물 사용량은 30~50t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서남해 뱃길 설 귀성객 15만명...9%↑

을 설연휴기간 동안 전남 서남해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8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에 따르면 관내 섬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차량은 12만5000여명, 3만3000여대로 전년 대비 여객은 9% 증가했지만 차량은 소폭 감소했다.

이번 설연휴기간 동안 관내 35개 항로에 60척의 여객선이 운항했으며, ▲목포권 7만3000여명 ▲완도권 5만2000명을 수송했다.

특히 목포~제주, 목포~비금(가산), 광골~노화, 완도~청산 항로를 이용한 귀성객과 차량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기간 내내 잔잔한 해상날씨와 주말과 연계된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관내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뿐 아니라 제주, 홍도, 청산 등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 이용객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 변신

폐선부지 웰빙공원에 설치된 가로등과 운동기구 등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시민들이 연동 9호 광장 ~ 임성역간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된 웰빙공원 산책로를 거닐며 운동을 하고 있다. 목포시는 해방기를 맞아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에 설치된 가로등과 운동기구 등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시 제공>

“광주근교 바닷가서 전원생활을”

함평 주포 한옥 전원마을 분양문의 쇄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바닷가에 한옥으로 지어지는 전원마을 분양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주포 한옥 전원마을 분양과 관련한 문의전화 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 쇄도하고 있다.

이 전원마을은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 일대 5만9330㎡ 부지에 ▲495㎡(150평)형 20필지 ▲661㎡(200평)형 30필지 등 총 50가구로 조성되며 도로, 상수도, 공용주차장, 가로등, 공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곳은 갯벌과 해안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함평만 돌머리 해안의 아름답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 등의 좋은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특히 광주에서 차량으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현재 4명이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로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리고 지역은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61-320-3873)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어장 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완도군 수산사업자 선정 기준 삼기로

완도군이 수산 사업자 선정 때 양식어장 관리 등 해양수산정책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내실 있고 차별화된 수산사업을 위해 올해 36가지 사업에 모두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7개소에 부잔교 및 인양기를 설치하고 60억원을 들여 김 환성화 처리제 지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양식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류양식 안정화를 위해 질병 예방 백신공급, 양식장 소독제 지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 등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수산 사업자 선정시 예년과 달리 해양수산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 가두리 어장 정비 등 어장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율적인 전북 가두리 양식어장 및 무기산 자진 반납 실적이 있는 개인과 어촌계에는 사업자 선정 기준 20% 안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질서한 어장정리와 면허 면적 대비 초과 시설, 무기산 사용 적발 어촌계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 북

단 신

부안에 전국 최대 ‘뽕 체험마을’

郡, 19억 투입...가족형 숙박시설 등 조성

전국 최대의 오디·뽕 재배지(340ha)인 부안에 뽕 체험마을이 생긴다. 부안군은 참봉 프로젝트 육성사업의 하나로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누에타운 특구 내에 참뽕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참뽕 체험마을은 19억원(도비 9억 5000만원, 군비 9억5000만원)을 들여 하루 100명을 동시 수용하는 가족형 숙박시설 5동, 뽕 체험관 및 판매장 1동,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군은 상반기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문화와 자연경관, 오디·뽕을 스토리로 한 고객 중심의 체험형 마을로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누에타운 특구는 체류형 관광, 오디·뽕 음식의 판매 체험을 위한 누에타운, 참뽕연구소, 전북 잡업 시험장 등이 준공되거나 건립중인 전국 유일의 누에산업 집적지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서연지 고가 철거 2013년 2월 완료

정읍시, 차량 통제·우회로 현수막 설치

호남 고속철도(KTX) 공사에 따라 정읍시 서연지 고가교 철거공사가 이달부터 2013년 2월까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롯데마트 등 시내 주요 8개 지역과 호남고속도로 태인IC 부근에 차량 전면통제와 우회도로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지역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는 서연지 고가교 철거에 대비해

그동안 기존 2차선 천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줄 것을 시행사 측에 요구, 현재 3차선(시외→시내 2차선, 시내→시외 1차선)으로 확보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에는 우회도로인 천변로를 이용하고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읍시내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정읍IC 대신 태인IC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구제역 예방’ 전북 2개 중·고교 개학 연기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과 지역적으로 인접한 완주군 화산중학교와 세인고교 등 2개 학교의 개학이 연기조치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 일정을 화산중학교는 7

일에서 24일로, 세인고는 8일에서 21일로 각각 조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개학을 이체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새만금 ‘메가리조트’ 내년 착공

195ha 3조4550억 투입...해양 복합레저단지 조성

세계 최장(33.9km)인 새만금 방조제를 국제적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오는 2026년 완공될 전망이다.

새만금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만금 5대 산도사업’중 하나로 군산시 신시도와 아미도를 잇는 3호 방조제 일대 다기능부지(195ha)에 총 3조4550억원을 들여 민간제안 공모방식으로 ‘해양형 복합 레저관광단지’<조감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2011~2017년) ▲2단계(2017~2020년) ▲3단계(2021~2025년)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시도와 아미도 부근 30ha에 호텔과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별장형 호텔 등을 조성하고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단계 사업 기간(2017~2020년)에는 이 일대 47ha에 가족호텔과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시설이 들어서며, 3단계 사업기간(2021~2025년)에는 잔



여부지 118ha에 메디컬 센터와 아쿠아리움, 해양박물관, 미디어 파크, 골프장(9홀) 등이 조성, 2026년이면 대부분의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7월 새만금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3월 메가리조트 컨소시엄과 최종 사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법인(SPC)을 설립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해 4월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78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국내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잡았다”면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최종사업자 선정은 새만금 지역이 서해안 관광시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진포 해양공원 위봉함 공개

군산시는 개·보수 과정을 거친 군산 진포 해양테마공원의 위봉함 함상을 일반에 공개한다.

군산시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 유치로 참례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

해 새롭게 꾸민 위봉함의 함상 공연무대를 이번 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각종 콘서트와 풍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함상 공연장에는 공연

무대와 함께 관람용 의자 200여 개가 설치됐다.

진포 해양테마공원은 고려 말 최무선장군이 최초로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물리친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해양공원이다. 이곳에는 육해공 퇴역 장비 13종·16대가 전시용으로 비치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녹색브랜드 사업단

목포서 사업설명회

녹색브랜드 사업단과 전남 축산물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백종걸)는 지난 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

서 ‘녹색브랜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암·신안·무안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종걸 대표이사는 “밀식(密植) 사육과 공장형 대량생산 등의 여파가 건강 식탁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보면서 안전하고 양심적인 생산과 유통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며 “녹색브랜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어장 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완도군 수산사업자 선정 기준 삼기로

완도군이 수산 사업자 선정 때 양식어장 관리 등 해양수산정책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내실 있고 차별화된 수산사업을 위해 올해 36가지 사업에 모두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7개소에 부잔교 및 인양기를 설치하고 60억원을 들여 김 환성화 처리제 지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양식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류양식 안정화를 위해 질병 예방 백신공급, 양식장 소독제 지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 등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수산 사업자 선정시 예년과 달리 해양수산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 가두리 어장 정비 등 어장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율적인 전북 가두리 양식어장 및 무기산 자진 반납 실적이 있는 개인과 어촌계에는 사업자 선정 기준 20% 안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질서한 어장정리와 면허 면적 대비 초과 시설, 무기산 사용 적발 어촌계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익산농기센터 18일까지 농촌진흥사업 접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는 급변하는 농업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011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탐마루쌀 단지 조성 ▲특채 소득작물 육성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2억원이다.

올해는 농업보조금의 소수 수혜자인 여성 농업인을 우대 선발하는 등 농촌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063-859-4313)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210회 맞아

김제시가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를 높이고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 아카데미’가 210회를 맞았다.

2월 ‘지평선 아카데미’는 ▲10일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한국사회와 21세기) ▲17일 여상환 국

제경영연구원 원장(역사는 인걸이다) ▲24일 하일성 전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프로정신과 직업의식)을 초청해 주제강연을 갖는다. ‘지평선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순창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순창군은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며, 이 기간 동안 신고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의해 3년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이스타항공-대한씨름협 씨름발전 협약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은 대한 씨름협회(회장 최태정)와 함께 민속씨름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1 설날 장사씨름대회’에 참석해 씨름협회와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 씨름협회와 상생을 위한 지원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세계적인 역도선수 장미란 선수에게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후원을 약속하는 등 비인기 종목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